경북매일

인쇄하기 창닫기

홈 > 뉴스 > 대구 > 일반

권영진 시장, 쪽방촌 방문… 혹서기 민생행보

2015년 07월 31일 (금) 이곤영기자

대구시는 지난 6월부터 무더위에 취약한 혹서기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을 위한 특별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30일 중구 성내동 쪽방촌을 방문해 선풍기와 밑반찬 등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사진> 대구시는 지난 6월부터 지역 쪽방생활인(888명) 중 홀몸 어르신과 건강이 좋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생 자원봉사단(10개 팀, 50명)이 직접 방문해 생활의 불편을 살피고 있으며, 선풍기와 생수, 식료품 등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하고, 각종 복지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 간부 및 공무원 봉사단이 무더위에 취약한 시민들을 직접 찾아 불편함을 덜어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주거약자들을 위해 매입주택, 영구임대 등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점차 확대·보급해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더욱더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